

특별기고

청년 일자리 박탈한 노동계는 누구 편인가



신일섭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동은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은 삶과 생존을 위한 노력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불법적이고 일자를 위한 생존 노력을 접해하거나 박탈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는 젊은 청년과 대학생, 취준생들의 일자를 크게 창출할 수 있는 소위 '광주형 일자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노동계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빠져있다.

광주형일자리가슴속단비

이번 민선 7기 이용섭 시장도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 출신답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계승, 성사시키고자 지금까지 열과 성을 다하였다. 가뜩이나 일자리도 드물고 취업하기조차 낙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운 이 지역 현실에서 어떻게든 '광주형 일자리'는 가슴에 단비같은 소식이었다.

형 일자리' 사업이 성사단계에서 큰 암초를 만난 것이다. 특히 파업으로 맞서는 노동계(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세다. 오로지 자신들만의 밥그릇만 챙기는데 급급한 노조들은 이미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 사이 협상해 놓은 합의문에서 자신들에 불리한 조항들을 철저히 거절함으로써 막판 협상타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초는 이를 수용했다. 이는 당시 5,000명의 실업자를 기존 생산직의 80% 수준인 월급 5,000 마르크(약 300만원)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자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한다. 이후 7년간 이 계획은 성공적으로 생산기지 역할하면서 순환을 거듭했고 고용위기가 끝난 2009년에는 폭스바겐 그룹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기고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 반드시 필요하다



김형욱

건설협회 전남도회

최근 장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최대 화두는 수주물량 확보와 공사수행과정에서의 적정공사비를 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문제들은 꽤 오랫동안 건설업계를 괴롭혀 왔고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으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설사의 수익이 감소하거나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한다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부족한 공사비로 인해 '적자공사'가 남발되면 건설업계의 부실화뿐만 아니라 인프라 부실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 건설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적 목표를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 혁신, 생애주기비용의 절감을 도모하는 것이다. '짧은 인공문이지만 영국 정부의 공공공사 조달에 대한 철학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공공조달과 건설업에 대한 인식과 철학은 사뭇 다르다. 무엇보다 발주자인 정부는 가장 쎄 가격에 시설 공사를 조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예산낭비라는 식의 비난도 많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면서도 미국, 유럽, 심지어 일본의 경우도 낙찰률이 100%에 가깝다는 사실은 의외라고 한다. 공사비 부족은 업계의 재산상 악화, 품질저하, 안전사고 증가 등과도 무관하지 않다. 건설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소득주도 성장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공사의 재산상 악화는 민원증가, 산업붕괴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다양한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어 향후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특지광장

국민적 열망 반영된 수사구조개혁을 바라며

수사권 조정은 과거 국가 변혁기마다 개혁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어 왔으나, 그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다름으로 꾀하여 미완에 그쳤다. 정부 안(案)은 경찰이 모든 사건의 1차 수사권 및 종결권을 갖고, 송치 전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것으로 마련됐다.

계 또는 경찰이 영장신청을 할때에 한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가 아닌 축소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여전히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경제·금융범죄와 부패범죄, 공직자 비리와 선거범죄 등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사건을 독점해온 현행 수사체계와 별반 다를 바가 없고 더욱이 경찰 수사 사건 중 수사권 남용이나 인권침해를 인지하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게 한 것도 사실상 모든 사건을 지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번만 아니라 검경(檢警)의 수사준칙을 대통령령에서 법무부령으로 바꾸는 것도 과거로 되행으로 바뀔 수 없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물론 경찰도 사건 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수사 역량을 키우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이제 검찰과 경찰의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범죄 수사 및 기소와 관련하여 권한의 배분이 아닌 상호 견제 장치를 마련할 때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순천경찰서 수사지원팀장 허동화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police, and fire.

전남매일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and website details.

사설

'사라지는 신생기업' 대책 시급하다

경제의 주역은 기업이다. 기업이 잘 되면 경제가 좋아진다. 창업도 늘어난다. 하지만 요즘엔 기업하기 힘들다고 한다. 새로 생긴 기업들이 더 그렇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신생기업 생존율이 전국 꼴찌라니 안타까운 일이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광주에서 창업하고 5년 이상 버틴 기업은 25%, 넷중 하나는 살아남고 셋은 문을 닫았다. 특히 외식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창업하기 좋은 직종이어서 여기 저기 생겼지만 장사가 안돼 폐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경기가 심상치 않으니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뜻이다. 소기업들은 경기변동과 대외변수 등 외부 충격에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신생기업 생존율이 낮은 또다른 이유는 저성장 지속에 상당수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줄이고 있는 점이다. 여기에다 갖가지 규제도 신생기업에게는 독이다. 특히 신생기업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타격이다.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힘든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광주와 전남 신생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연구기관이 나서 축적된 연구 성과를 활용해서 창업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 고기를 잡아야 고기를 잡는 그물이 절실하다. 아이디어와 기술, 우수 인재라는 3박자를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 1%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신생기업 생존율을 높여야 한다.

'님 행진곡' 민주주의 상징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이 세계 민주주의의 상징곡으로 다시 태어난다.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비 9억원이 내년도 국회 예산심의에 반영된 것이다. 이 사업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작·보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광주시는 올해 '님을 위한 행진곡' 글로벌 브랜드화를 시작했다. 전 세계인들이 접하기 쉬운 클래식을 만들었다. 접근성을 좋게 만들어 세계 민주주의의 상징곡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실제 만들어진 관현악곡은 국내외에서 초연되며 관심을 모았다. 그리고 이번 사업비 확보로 보다 다양한 콘텐츠 만들기에 동력을 얻었다. 광주시는 '님을 위한 행진곡 창작 뮤지컬'을 제작하고 2020년 국내외 순회공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만·

중국 등 국가별로 제작과 불리고 있는 것도 표조화 한다. 2022년까지 표조가사를 마련하고 행진곡의 가사와 배경, 과정 등을 세계어로 번역해 배포할 예정이다. 아시아, 유럽 등 민주주의 분야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행사도 추진한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상징이다. 1980년대 민중의 뜨거운 삶과 시대정신이 담겼다. 광주정신이 깃든 곡을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로 제작 보급하자는데 이견은 없었다. 이에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관현악곡 제작, 국내외 연주회 개최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사업은 5월 민주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다. 2022년까지 진행될 사업을 통해 문화콘텐츠들이 만들어진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기대한다.

서구, 겨울철 고독사 근본대책 없나

광주지역에서 올해 한해 발생한 고독사 중 서구 관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북지를 선도한다는 서구청의 꼴이 말이 아니게 됐다.



김종찬 사회부 기자

지난 5일 오후 3시 20분께 서구 치평동 한 원룸에서 A씨(68)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집에서 심한 냄새가 난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망한 지 일주일 이상 지난 것으로 보이는 A씨를 발견했다. 서구에서 겨울철 고독사가 나온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 55분께 서구 광천동 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 3층 B씨(64) 집 안방에서 B씨가 옆으로 누운 채 숨져있는 것을 마을반장이 발견했다. 마을반장은 동파 상태로 방치된 수도배관이 열려돼 B씨 집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당뇨 등 질병을 앓으며 수년 전부터 가족과 연락을 끊은 채 홀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서구에서 고독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한결에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이를 방지했다는 눈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일 발생한 고독사에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8월 이후 A씨 집을 찾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생을 보러 전남에 내려가겠다는 말을 했더라도 수시로 체크를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물론 구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추운 겨울을 지내는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락 배달부터 반찬 배달,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등이 그 사업들이다. 하지만 고독사가 매년 겨울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면 인력충원, 홀몸노인 전담팀 신설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보다 이를 앞서 19일 오전 9시 40분께는 서구 양동 한 아파트 1층 C씨(66·여) 집 화장실에서 C씨가 변기에 앉은 자세로 숨져있는 것을 아파트관리사무소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